



박지성도 막하고...

26일 오후 중국 상하이 흥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조 2차전 경기에서 한국의 박지성이 북한 수비수와 볼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여상 전국 최강

서울중앙여고 3-1 제압

김주영 최우수선수 영예

춘계 전국남녀중고배구



26일 해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춘계 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여고부 결승에서 전국최강 서울 중앙여고를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우승한 목포여상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여상 제공>

25-23으로 승리, 분위기를 반전시킨 후 3세트에서 드스 끝에 레프트 공격수 김주영(3년)의 공격이 성공해 27-25로 극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목포여상은 4세트에서도 시소게임을 벌인 끝에 끈질긴 수비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25-23으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목포여상은 지난해 대통령배와 CBS배 우승 등 2관왕에 올랐으나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 중앙여고에 패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끊어야 했다. 한편 정진 목포여상 감독은 이번 대회 감독상을 수상,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심기일전한 목포여상은 2세트에서 특유의 조직력과 수비력이 되살아나며

컴퓨터 토스로 일찌감치 실업팀의 눈도장을 받았다.

이외에 김주영과 자매간인 김주하(센터·1년)와 문슬기(레프트·1년)도 1년생 담지 않은 뛰어난 활약을 보여 팀 승리에 기여했다.

목포여상은 지난해 대통령배와 CBS배 우승 등 2관왕에 올랐으나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 중앙여고에 패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끊어야 했다.

한편 정진 목포여상 감독은 이번 대회 감독상을 수상,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철벽 수비에 '꽉 막힌 90분'

한국 최강 멤버 불구 플레이 답답...북과 0-0 무승부

월드컵 축구 亞 3차 예선

박지성과 정대세의 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대결은 지리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무승부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26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스타디움에서 열린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조 2차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1점을 횟기는데 만족해야 했다.

월드컵 대표팀은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김두현 등 해외파가 총출동해 지난달 20일 충청 동아시아선수권대회 1-1 무승부를 만회하려고 했지만 상대의 철벽 수비에 막혀 북한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허정무 감독은 조재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박지성과 설기현을 내세우고, 박주영을 쳐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해 4-3-3 전술을 승부수로 끄었다.

북한도 '아시아 뿐니' 정대세를 원톱으로 올리고 유럽과 홍영조를 왼쪽 측면에 기용하면서 3-4-3 전술을 내세웠다.

애초 예정됐던 북한 평양 대신 장소가 우여곡절 끝에 상하이로 바뀌면서 붉은악마와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흥그라운드를 방불케 했지만 태극전사들의 공격은 매끄러워지 못했다.

전반 시작하자마다 왼쪽 날개를 돌파한 이영표가 아크 정면에 있던 조재진에게 찔려줬지만 조재진이 원발로 강하게 찬 공이 왼쪽 골대를 한참 벗어났다.

전반 초반 미드필드를 장악하며 경기를 풀어가던 대표팀은 박지성이 여러 차례 활발한 돌파로 공격을 주도하고 전반 13분 골문까지 올라가는 등 수비진을 위협했으나 역습을 노리며 밀집수비를 펼치는 북한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전반 25분에는 주장 김남일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실려나간 후 허정무 감독은 김남일 대신 플레이메이커 김두현을 투입해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지 못했고 전반 인저리타임 북한 김영준의 오른쪽 프리킥을 골키퍼 정성룡이 광활히 하자 북한 공격수들의 헤딩으로 이어지는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다.

허정무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부진한 조재진을 빼고 염기훈을 투입하고, 박주영을 원톱으로 옮겨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지도 무위에 그쳤다.

후반 7분 조원희가 골키퍼가 나온 틈을 타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다. 11분에는 염기훈이 왼쪽 미드필드 부근에서 원발로 프리킥을 치어쳤으나 골키퍼 바로 앞으로 날아갔고 후반 15분에도 김두현이 아크 정면에서 강하게 때린 대포알 슈팅이 리명국의 선방에 걸리면서 후반에 들어서도 북한의 수비를 뚫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다.

이후 허정무 감독은 체력이 떨어진 설기현을 빼고 수비수 한태유를 투입해 무승부 작전에 들어갔고, 북한도 후반 인저리타임 스트라이커 김두현을 투입해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지 못했고 전반 인저리타임 북한 김영준의 오른쪽 프리킥을 골키퍼 정성룡이 광활히 펼친 것에 만족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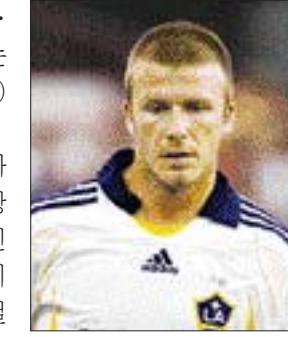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베클 A매치 100경기 출전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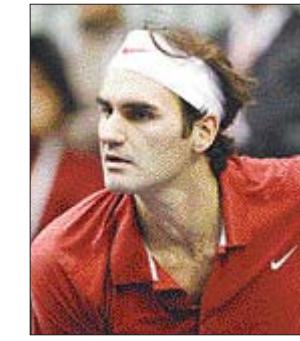
데이비드 베클(33·LA 갤럭시·사진)이 잉글랜드 축구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국가대항전(A매치)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파비오 카카로 감독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와 친선전(27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클은 프랑스전에 뛸 것이다. 그러나 선발로 내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베클의 A매치 100경기 출전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이어 "베클을 미국에서 불러와 A매치에 뛰지 않게 하는 것은 내게도 잔인한 일"이라며 "베클이 대표팀에 해줄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카카로 감독은 지난달 스위스와 평가전을 앞두고 베클이 체력적으로 완전하지 않는다는 판斷을 내려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았다.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는 지금까지 보비 찰턴(106경기), 보비 무어(108경기), 빌리 라이트(105경기), 피터 월턴(125경기·골키퍼) 등 4명 밖에 없다.



페더러 4년 연속 '올해의 선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사진)가 남자프로테니스(ATP)가 선정하는 2007 올해의 선수상을 4년 연속 받았다.

ATP는 26일(한국시간) '2007 ATP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하며 "페더러는 스포츠맨십 상과 인기상도 함께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료 선수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정해지는 스포츠맨십 상도 페더러

가 4년 내리 훨씬었고 팬들이 선정하는 인기상은 5년 연속 페더러 차지가 됐다.

페더러는 "큰 상을 3개나 받게 돼 매우 기쁘다. 4년 연속 랭킹 1위를 지킨 것이나 동료와 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2007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해 8승을 거두며 다음 1위에 오른 페더러는 2년 연속 메이저대회 결승에 모두 진출한 최초의 선수였다.

기량 발전상(MIP)은 노박 조코비치(21·세르비아)가 2년 연속 받았다.



최고가 국내산 경주마 탄생

2살 '자마' 1억1천만원에 팔려

국내산 경주마 경매에서 1억원을 넘는 말이 처음 탄생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양남일)는 25일 제주시 조천읍 고래리 KRA 제주경주마목장에서 열린 국내산 경매에서 씨수 말 디디미와 씨암말 우드페임 사이에서 태어난 2살 자마(子馬·사진)가 1억1천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최고가는 2006년 3월에 팔린 '팝슬루'가 기록한 9천600만원이었다. 제주 숭골목장에서 태어난 이 말은 서울경마공원 김모 마주가 사갔다.

부마(父馬)인 디디미는 2006, 2007년 2년 연속으로 자마들의 경주 상금 합계로 씨수말 순위를 가리는 '리딩사이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배 전국축구 결승전(04:10·KBS1)

▲제6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15: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 월드컵(05:00·SBS N SPORTS)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삼무)(18:30·KBS N SPORTS)

▲춘계 남녀 중고 배구선수권 남고부 결승(14:00·SBS N SPORTS)

SBS스포츠

